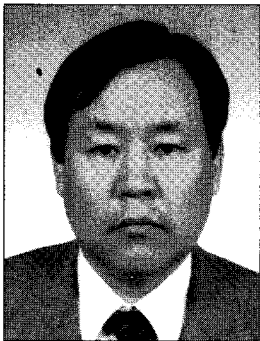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 꾀할 터

과감한 투자로 제품 차별화



◀ 정상열
(주)신광화학 대표이사

산업이 발달하고 모든 소비 생활이 변화되면서 편의성을 추구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일회용의 사용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특히 일회용품 소재로 많이 쓰는 것이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해 제공된 편의성과 기능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여러 측면을 고려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신광화학은 화장품, 생활용품 등 각종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며 고객 만족을 꾀하고자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신광의 정 사장은 “환경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한

다면 산업 발달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환경 문제를 고려하며 고객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광은 각종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며 고객 만족과 시대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 사장은 화장품 및 샴푸를 생산하는 생활용품 업체와 평소 두터운 친분이 갖고 있던 터에 정 사장이 우연히 그 업체를 방문했을 때 용기 제조 업체가 납기일을 잘 맞추지 않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본 정 사장은 직접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해 납품하겠다고 제의했다.

신광은 설립 당시 임직원 3명, Blow molding 기 1대로 출발해 지금은 생활용품에서 화장품 용기, 세제용기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고객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89년 상호를 신광화학공업사로 변경하고 1992년 사세확장으로 제2공장을 신설해 시출부와 인쇄부, 금형부를 구성해 좀 더 체계화를 꾀하였다. 1995년에는 자가 공장을 구입해 지금의 사업터인 부천시 도당동으로 이전해 (주)신광화학으로 법인 전환해 명실상부한 플라스틱 생산 업



▲ 신광화학 제1공장 전경

체로 자리매김 했다. 1996년에는 제1공장과 제2공장을 통합하고 지금의 신광화학이 위치한 부천시 도당동으로 이전하고 식품용기 및 포장용기 제조업 허가를 받아 25여년간 다양한 플라스틱 용기를 선보이고 있다.

정 사장은 “신광은 설립 당시 너무나도 미미하게 시작해 지금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용기의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었으며 이에 더욱더 많은 투자와 열정을 다한 결과 지금에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

신뢰가 가장 큰 재산

정 사장은 평소 “약속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지킨다”라는 생활 신조와 “사람간의 신뢰가

가장 큰 재산이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최상의 제품 공급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여느 업계나 마찬가지로 기업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미래가 좌우된다.

1985년 신광에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 그러나 정 사장과 임직원이 평소 쌓아온 인간적인 신뢰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큰 역할을 발휘했다. “1985년 큰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순탄한 경영을 해 왔던 터라 갑작스런 어려움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광의 제품을 사용하던 거래처들은 신광에 대해 신뢰와 믿음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고 임



▲ 신광화학 2002년도 춘계 단합회 기념 촬영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더욱더 열심을 냈고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는 정사장은 “비록 어려웠던 순간이었지만 그 반면 신광과 고객간의 두터운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가슴 뿌듯한 순간으로 회상했다.

신광은 그 기술을 인정받아 24시간 가동 중에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 사장은 국내 포장 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미미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한다. “국내 포장 업계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고 하나 아직도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업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은 물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라고 정 사장은 강조했다.

투자만이 성장의 지름길

소비생활이 고급화됨에 따라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범위 또한 늘고 있다.

플라스틱은 가공이 쉬우며 타 소재보다 가볍고 다양한 재질을 표현할 수 있으며 경질과 연질, 투명과 불투명, 솔리드의 발포제 등 성질이 다양하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내수성이 좋아 녹 발생이 없고 재료에 따라 기본적인 성질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광은 시대에 맞게 HDPE, PET, PYC, PETG, PP 등 Blow용기와 PP, PS 등 사출 제품 등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고객의 편의를 위해 용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부터 원료배합, Blow용기 및 사출용기



◀ 신광화학이 생산하는 각종 플라스틱 용기

생산, 인쇄까지 전 공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상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신광이 자신 있게 선보이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용기이다. 때문에 신광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젊은 세대의 생각과 문화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광은 여느 동종 업계와는 달리 많은 투자를 통해 제품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광은 신제품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욕구 만족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신광화학은 좀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고객 만족을 꾀하고자 오는 2003년에는 건평 6천평을 매입해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정 사장은 신소재 개발을 통해 환경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장에 있어서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만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환경 오염과 관련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꾀할 수 있으며 그 소재로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용 제한은 오히려 산업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정 사장은 강조했다.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 생활 패턴에 맞게 플라스틱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자 주력하는 힘찬 움직임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신광의 활약에 주목해 본다. ☐

권해진 기자